군산지역 숙원사업 해결 취약계층 주거안정 기여

전개공, '금광지구 행복주택' 착공 들어가
젊은층·노약자 등 주거안정 기여 전망

군산 금광지구 조감도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지난 3월말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착공에 들어 갔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도시재생 연계형 사업으로, 주거취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 및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노약자,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총 98세대(전용면적 21㎡형 34세대, 29㎡형 30세대, 36㎡형 34세대) 2개동으로, 지난 2월 28일 전라북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했다. 지난 3월 20일 군산시 지역업체인 (유)승명종합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돼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사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건설업계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보건 교육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와 업무유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활동 등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만성 A-2BL 공공임대아파트, 진안(군상) 농어촌임대주택, 무주(설천) 농어촌임대주택 및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4개단지 1,108세대를 건립중에 있으며, 도내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우울감, 실내 텃밭 가꾸며 달래세요'

농진청, 잎채소·허브 등 재배 쉬워
초록 식물이 주는 치유 효과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31일 코로나19와 미세먼지를 피해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무는 동안 우울과 무기력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주거 공간을 활용한 실내 텃밭 가꾸기를 제안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텃밭 가꾸기를 통해 식물을 기르는 재미와 수확의 기쁨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

실내 텃밭을 조성할 때는 실외보다 햇빛의 양이 20~50% 떨어지므로 햇빛을 적게 받아도 잘 자라는 작물을 선택해야 한다.

초보자도 재배가 쉬운 잎채소와 허브 등은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봄과 가을에는 잎채소인 상추, 청경채, 겨자채 등과 당근, 적환무를 추천한다.

특히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는 적환무는 파종한 뒤 20일이면 수확할 수 있어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여름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으므로 더위에 강한 치커리, 근대, 엔다이브가 적당하다.

케일, 다채, 부추, 쪽파는 계절에 상관없이 재배할 수 있으며, 허브 식물인 바질, 루꼴라, 민트도 키우기 쉽고 요리에 이용할 수 있어 좋다.

실내 텃밭을 만들려면 작물의 씨앗이나 모종, 화분 또는 텃밭 상자 등 재배 용기, 유기물이 함유된 원예용 상토를 준비한다.

모종은 보통 봄철(4~5월)과 가을철(8~9월)에 구매할 수 있다. 씨앗을 직접 심을 때는 모종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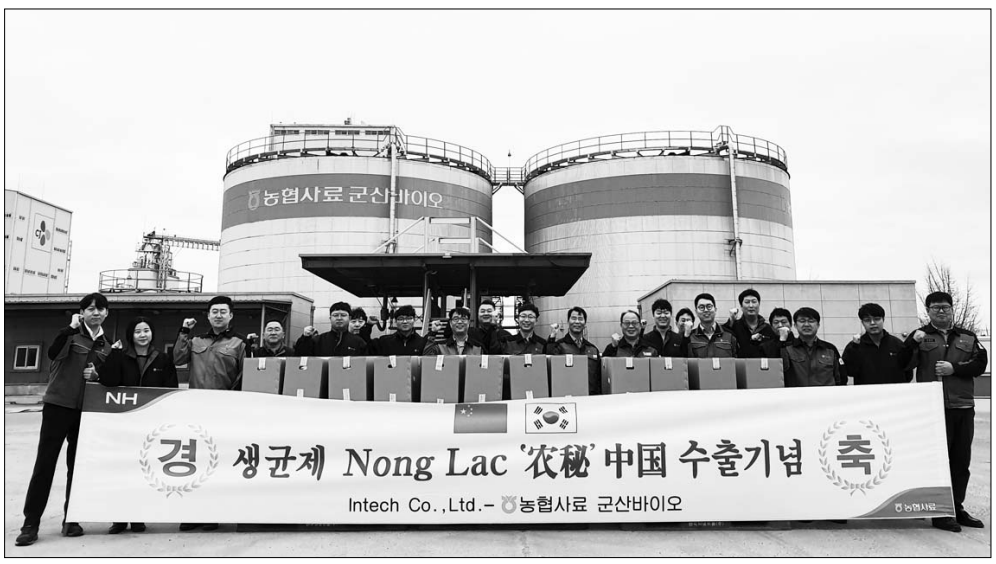
실내의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병이 발생하고 진딧물, 총채벌레 등 해충이 생기므로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병해충이 발생하면 난황유, 마요네즈, 베이킹소다 등 천연 방제제를 이용해 방제한다.

잎채소는 모종으로 옮겨 심은 후 2~3주 뒤부터 식물 한 주당 2~4장 정도 수확할 수 있다. 이때, 다음 수확을 위해 식물의 가장 안쪽 본잎 2~3매 이상을 남긴다.

정명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은 "텃밭 가꾸기는 취미와 여가활동, 먹거리 생산을 넘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외출이 쉽지 않아 우울감을 느끼는 요즘, 집안 텃밭을 가꾸며 자연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2015~2017년 유아·아동 자녀를 둔 부모에게 텃밭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부모는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티솔' 농도가 참여 전보다 56.5% 줄었고, 자녀 우울감은 20.9%p 감소했다.

또한 자녀, 부모가 함께 텃밭 활동을 하면 부모 양육 스트레스는 9.9%p 낮아지고, 자녀의 공감 수준은 4.1%p 높아졌다. /김윤상 기자



농협사료는 최근 군산바이오공장에서 '2020년도 2차 생균제 중국수출 물량(7톤)'을 출고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2차 수출 '쾌거'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생균제 중국수출 물량 출고

농협사료(대표이사 안병우)는 최근 군산바이오공장에서 '2020년도 2차 생균제 중국수출 물량(7톤)'을 출고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최근 중국 생균제 시장은 면역력 증진을 위한 항생제 대체재 및 소비자의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 중국 현지 제품들이 치열한 품질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바이오는 중국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등 질병으로 인한 축산시장의 위축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세계 확산에 따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2차 중국 수출을 이어나가는 쾌거를 이뤄냄으로써, 군산바이오 생균제의 품질 우수성을 입증했다.

군산바이오 김종철 장장은 "순탄치 않은 시장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좋은 생균제를 공급함으로써 가축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진과 더불어 축산환경개선 및 농가소득 증진에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 시장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군산-농어촌공, 은파 호수공원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군산시(군산시장 강임준)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군산지사(지사장 송홍석)가 범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오늘부터 은파호수공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합동 건강지킴이'로 나섰다.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는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기관 간 협업의 결실로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확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국내 최대 근대역사가 숨 쉬고 있는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내 최대 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연평균 방문객 67만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월 초까지는 방문객이 평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상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했다.

3월 말부터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열화상카메라 설치는 방문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 관계공무원 모두가 하루하루 전쟁을 치루는 심정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설치된 열화상카메라의 열체크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객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확산 따른 소비심리 위축 극복

경진원, 온라인 판매지원 강화
위메프와 전북상품 온라인 판로확대 업무 협약 체결
도내 제조업체 위메프 입점 프로모션 지원까지 '원스톱'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지원을 강화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행취소, 가계 소비지출 축소, 범 정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전개 등 오프라인 소비심리 급랭으로 도내 생산제품 소비 급감하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와 경진원은 도내 상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마케팅 사업을 발굴했다. 30일에는 위메프와 '전북상품 온라인 판로확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도내 제조업체들에 대해 상세페이지 제작부터 위메프 입점, 프로모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배너광고 게시, 할인 쿠폰 제공 등 제품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이번 온라인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도내 제조생산 사업장과 농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북 대표 쇼핑몰 거시기장터 등 전북상품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11번가, 우체국 쇼핑 등 다양한 채널 제휴를 통해 도내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내 중기 대형 유통망 개척

NH홈쇼핑 방송지원 희망업체 모집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대형 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NS홈쇼핑 방송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수제품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으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우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전북소재 우수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홈쇼핑 담당MD가 상품구성, 가격, 경쟁력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NS홈쇼핑 방송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

현재 희망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모집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화문의(온라인팀 063-711-2031)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혁신제품 되다

현대·기아차 '벡스'

현대·기아차는 독일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hein Westfalen)가 주관하는 '2020 레드 닷 어워드(2020 Red Dot Award)'의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분야에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벡스(VEX)'와 기아차 유럽 전략형 모델 '엑씨드(XCeed)'가 혁신 제품(Innovative Products) 부문과 자동차·모터사이클(Cars and Motorcycles) 부문을 각각 수상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1955년 시작된 레드 닷 어워드는 iF,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으며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컨셉 3개 분야로 나눠 공모전을 통해 각 부문 수상작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산업 부문을 통틀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부터 혁신적인 소재나 작동 방식이 적용된 제품을 선정하는 '혁신 제품' 부문을 신설해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에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이외 제품으로는 최초로 출품해 혁신 제품에 선정된 '벡스'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장시간 위쪽으로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 연구 조직인 로보틱스랩에서 지난해 자체 개발했다.

현대·기아차 로보틱스랩 현동진 실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산업 현장의 작업자를 돕기 위해 로보틱스랩과 현대디자인센터가 협업 개발한 '벡스'의 사용 편의성과 심미적 우수성을 모두 인정받았다"며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디자인센터장 카림 하비브 전무는 "기아차는 지속적인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더욱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비전은 기아 크로스오버차량인 엑씨드에 잘 녹아 있다"며 "저희의 결실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엑씨드'는 지난 2월 발표한 '2020 iF 디자인상(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에서도 지난해 '씨드' 3개 모델 수상에 이어 제품 디자인 분야 수송 디자인 부문 본상에 선정돼 전 모델 수상을 기록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 회의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31일 상황실에서 영업본부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비상 금융지원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기업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여신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후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본부는 현재까지 총 1,099건, 351억원의 코로나19 관련 자금을 지원했으며,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코로나 피해기업 전담상담창구 운영', '영업점 여신인력 전진배치'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밀착형 은행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비올 때 든든한 우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